

보성 명물 大麻 사업 다각화

<대마>

‘항균성 천연섬유’ 기능 확인 수요 급증

의류·식품·펄프 등 가공제품 개발 나서

보성군이 삼베 재료인 대마(大麻·삼)를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

보성군은 300여 농가가 미력면 일대 50여ha에서 재배하는 대마 생산 면적을 확대하고 관련 상품개발과 대마 체험관 조성에 나선다.

또 현재 삼베 생산에 그치고 있는 대마 파생산업을 섬유와 의류, 식품, 제약, 펄프, 화장품 등으로 넓혀 나갈 방침이다.

대마의 껍질을 이용해 만든 보성삼베는 올이 가늘고 질겨 질감이 좋은데다 상쾌한 착용감과 통기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항균성 천연섬유 기능이 확인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마 껍질은 괴상만으로 연평균 10여 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그치고 있어 산업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성군은 이에 따라 올해 3억여 원을 들여 대마 재배농가에 종자를 지원하고 재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심포지엄 개최와 연구용역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군정 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대마산업 토론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마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마의 새로운 재배기술과 상품가치 창출을 위한 대책 등이 제시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삼베산업에서 앞서가고 있는 중국을 벤치마킹하고 대마제품의 현대화, 고급화로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보성삼베를 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보성 벌교에 민족음악가 ‘채동선 음악당’ 개관

유품 전시관·객석 344석 갖춰…14일 기념 음악회

일제시대 투철한 민족정신으로 유명한 작곡가 채동선(1901~1953) 선생을 기리는 음악당이 고향인 벌교에 세워졌다.

보성군은 4년여 공사끝에 오는 14일 ‘채동선 음악당’ 건립 개관 기념 음악회를 연다.

최동선 음악당은 사업비 52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 면적 1천461㎡에 344석을 갖춘 공연장 1곳과 전시실, 분장실, 출연자 대기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 1901년 벌교에서 태어난 채동선 선생은 경기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 재학중 3·1운동을 주도했고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에서 작곡 과정을 공부했다.

창작 활동과 국악 체보에 전념했으며 광복후 고려음악회를 창설해 민족 음악의 토대를 닦았다.

대표작인 ‘고향’과 ‘추억’ ‘동백꽃’ 등은 지금도 애창되



고 있다.

한때 남북시인 정지용의 시에 곡을 불었다는 이유로 빛을 보지 못했으나 정부가 1995년 ‘9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하면서 민족음악의 선구자로 재평가됐다.

이번 개관기념 음악회는 테너 엄정행과 메조소프라노 강화자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무대에 선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선생님! 영어공부가 즐거워요”

구례중앙초, 디지털 영어교재 활용 성과

구례 중앙초등학교(교장 심왕섭)가 디지털 영어교재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앙초는 학생들의 영어구사 능력 향상을 위해 방과 후 학교 영어반 60여 명을 모집, ‘디지털영어 교재 활용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라는 주제로 실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층은 디지털 영어교재 활용을 위해 원도우 기반의 서버를 구축하고 무선랜 시설을 교내 곳곳에 설치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운동장 등 교내 어느 곳에서나 음성 메시지로 교사와 질문·답변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습관리 시스템(LMS)을 활용한 60여 차례의 수업연수와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실시, 학교에 맞는 수업 모형을 정립하고 교사용 가이드북을 개발했다.

학교측은 아침 방송을 통해 영어 동화·만화를 방영하고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골든벨 행사를 열어 우수한 어린이에게 시상을 하는 등 의욕을 북돋아 주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지금은 유기!
현금 목돈 빌려
→ 자을 낸방 고민 끝~

초절전형 낸방기 키스 키스 하자!

무료 무한 키스
80% 할인

나부설, 신설, 수증
제설, 풍차, 풍차설
설비, 힘削弱
설비 설치

거부금지
자율적인 낸방기

제설 구설
로의 일상

080-372-2900



화순 적벽(赤壁) 비경(秘景)은 행정자치부 주관 ‘제 2회 살기좋은 지역지원 경연대회’

에서 은상을 차지했다. 이서면 동복호에 위치한 적벽은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전남도 지방기념물 제 60호로 지정돼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나주배 신활력 사업’

탄력 받았다

나주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나주배 신활력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배 1기 신활력 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해온 데 이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기 사업을 추진한다.

2기 사업은 국비 57억원을 투입해 생산과 가공, 유통, 교육 등 보다 세부적 사업이 추진된다.

나주배 공동브랜드인 ‘비단고을’ 홍보와 마케팅 강화

2010년까지 57억 투입 생산·가공체계 등 구축

를 비롯 기능성 배즙 생산, 인공수분용 꽃가루 보급, 노목(老木)갱신 등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지원책이 강화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사업 추진을 전담해왔다.

또 지역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나주배 혁신사업과 지역 농협 등이 출자한 산지거점유통센터(APC)와도 상호 연계해 배 가공식품 개발 및 유통 협력화로 나주배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여수시, 전 공무원 해외연수 보낸다

오현섭 시장 “박람회 대비 국제감각 필요”

여수시, 정부 특단대책 기대

2012 세계박람회를 유치한 여수시가 과격적으로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현재 1천 800여 명에 달하는 여수시 공무원 중 절반 가량이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을 모두 외국에 보내기 위해

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상 국가, 기간, 내용 등 내실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수시는 또 매주 간부회의 때 원어민 교사를 초청하는 등 공무원들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4년간 여수지역 징세 20% 지원해 달라”

여수시, 정부 특단대책 기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여수지역에서 거둬들이는 국세 징수액의 10~20% 가량을 박람회 개최 준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절실히”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로선 여수일원과 박람회장 인근의 기반을 조성 할 수 있는 예산마련 방안이 사실

상 없다”면서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이와관련 여수세계박람회의 국세 지원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말 기준 여수지역 국세 징수액은 4조원대에 달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물가인상 억제 참여 감사합니다”

광산구, 53개 업소에 인센티브

가연조성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이라면서 “201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여수지역에서 거둬들이는 국세 징수액의 10~20% 가량을 박람회 개최 준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절실히”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로선 여수일원과 박람회장 인근의 기반을 조성 할 수 있는 예산마련 방안이 사실

하고 ▲옥외가격표 게시 ▲원가절감 노력 정도 등을 모범업소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광산구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물가도너리 요원을 기동해 추가 모범업소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모범업소는 구 홈페이지(www.gwangsan.go.kr)에 공개된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무등산 자연의 푸른호수 화순 청정리 편원 Village 청정호수 전원주택단지 분양

무등산 자연의 푸른호수 화순 청정리 편원 Village
청정호수 전원주택단지 분양

자연 IN 편원

화순 청정리 편원 Village
청정호수 전원주택단지 분양

080-372-2900